

## 양구군, 'DMZ 조이나믹 체험장' 시범운영 실시

신효재 기자 life@mtn.co.kr 2021/09/27 17:19



(사진=양구군)DMZ 조이나믹 체험장

양구군은 해안면에 추진해온 'DMZ 조이나믹 체험장'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8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.

DMZ 조이나믹 체험장은 양구군이 해안면 후리 2만 5463㎡의 부지에 2018년부터 국비 25억 원과 도비 7억 5000만 원, 군비 17억 5000만 원 등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한 체험형 놀이시설이다.

DMZ 조이나믹 체험장은 트렘펄린, 모험놀이, 터널놀이, 네트 놀이대, 조합 놀이대, 곡선형 짚와이어 등의 체험시설과 스마트모빌 도로(연장 414m, 폭 3.5m) 및 안보오름길(연장 120m, 폭 2m), 인공연못과 조형 암벽을 갖춘 중앙광장, 데크 등 휴게시설, 화장실, 42면의 주차장,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.

해안면 통일관 옆 전쟁기념관 뒤 부지에 추진된 DMZ 조이나믹 체험장 조성사업은 지난 2017년 3~6월 기본구상 용역을 거쳐 같은 해 5월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반영됐으며 같은 해 9월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확정됐다.

지난 2018년 8월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고 같은 해 10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다.

이에 공사를 추진해 2019년 상반기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 2차 공사를 실시했다.

올해에는 각종 체험시설을 설치해 안전점검 등을 거쳐 28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.

조인욱 군수는 "제4땅굴과 을지전망대 등 안보관광지 위주의 해안면 지역에 관광레저시설을 보강해 방문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DMZ 조이나막 체험장을 조성했다"며 "시범운영을 거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정식으로 개장할 예정"이라고 밝혔다.

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

<저작권자 © "부자되는 좋은습관 대한민국 경제채널 머니투데이방송 MTN">

---

 [프린트하기](#)  [닫기](#)